금주의 법구–〈법구경〉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월 23일)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 불교문화 보존정책 '주목'
# 차별금지·기후위기 '관심'

##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공약 분석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규제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국가차원 문화재 보존·방재 관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국가적 불교유산 보존·멸실방지는 선택 아닌 국가가 해야할 의무사업"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전통사찰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무형 전통문화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사찰과 스님의 존재 덕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들이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통·불교문화 전승과 보존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불교 및 문화유산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전통문화 보존대책의 필요성에 공감입장을 밝혀, 이번 대선은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대안도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과 기후위기 대응 등 대사회적 현안도 불자들이 주목하는 핵심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월 1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10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당내 전통문화발전특위가 발표한 입법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전통사찰과 사찰 소유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등 사찰부지에 중첩된 규제 완화, 종부세 등 사찰의 세제부담 경감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시 자부담율 비율 감소를 통해 국가지원을 늘리고 사찰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오랜 논란의 중심인 문화재 관람료 제도에 대한 점진적인 폐지도 약속했다. 전통사찰의 전기세 부과기준이 공익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도 공언했으며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수적인 전기료·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불교 문화재는 대부분 사찰이나 종단 등의 소유이며,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기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 방재 등 관리를 지원하고, 종교를 넘어선 K-콘텐츠와 연계 육성하는 진일보한 문화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람료 해결 등 중점**
**보존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이재명·윤석열 가장 적극적**
**안철수·심상정도 기조 공감**
**탄소 중립 관심도 높아 주목**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2월 3일 발표한 전통문화 관련 공약 역시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모양새다. 선대위는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와 국립공원 제도 개선,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대표공약으로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을 비롯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0% 자부담율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결국 여야 유력후보로 꼽히는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각기 발표한 공약이 큰틀에서 같은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조직으로 각각 '종교평화상생화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종교평화위원회(국민의힘)' 설치도 약속해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국가 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가 문화재를 관리해온 불교계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며 "사찰에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이행점검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포함한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으며, 안철수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 비율 조정을 약속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의 경우 다소 미온적인 태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의 불', 한반도 평화 염원 밝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화합,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평화의 불'이 108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 등화대에 점화됐다. 서울 도안사(회주 선묵 혜자)가 2월 12일 도안사서 등화대 점화법회를 개최한 가운데,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불을 선묵 혜자 스님이 옮기고 있다. 〈현장 기사 4면〉 글·사진=노덕현 기자

# 동국대 건학위 '불교사전' 재간행한다

## 16일 기관장 회의서 5대 공통의제 발표

**사전·부처님 생애 발간해**
**건학이념 구현, 불법 홍포**
**메타버스·유튜브 활용도**

현재 주요 포털에서 불교 관련 용어를 검색하면 원불교대사전을 인용한 검색결과를 확인된다.

이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불교사전〉을 재간행해 보급에 나선다. 이를 통해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불교를 바르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2월 16일 제3회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열고 5대 공통의제 발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발표된 공통의제는 △동국인의 신행 활성화(신행) △건학이념 교과목 교육과정 표준화 및 고등화(교육) △건학이념 및 인문학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교육) △건학이념 관련 도서 발간(교육·연구)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메타버스 및 유튜브 활용방안 연구(신행·교육) 등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은 건학이념 확립과 대중포교를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사전〉을 발간한다. 교내 협력기관으로는 불교학술원과 출판문화원이 참여한다.

〈부처님의 생애〉는 윤재웅 다르마칼리지 학장 등을 중심으로 간행위원회가 구성돼 편찬에 들어가며, 〈불교사전〉은 황순일 서울 불교대학장과 석길암 경주 불교문화대학 교수 등으로 재간행위원회가 구성된다.

계획을 발표한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은 "주요 포털에서 불교 용어를 검색하면 원불교 대사전으로 검색이 된다. 이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3월 중 각각 간행위원회를 구성해 연말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는 부처님께 봉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건학이념구현 교양교과목도 재점검해 개편이 추진된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많은 시간에 걸쳐 공통 의제에 대한 추진 상황 발표와 논의들이 이뤄졌다"면서 "학교 건학이념 구현과 불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봉축표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 봉축위원회, 불기 2566년 봉축표어 선정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에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Back to the Life of Blossoming Hope)'가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은 2월 17일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발표했다. 이번 표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공모전을 통해 모집된 후보작 가운데 선정됐으며, '우리도 부처님 같이'와 함께 올해 봉축표어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함께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봉축위는 "사회적 어려움과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샘솟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한다"며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는 개개인의 건강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아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모연동참안내**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 10대사업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